

松阜 權寧玉 研究*

權純烈**

〈차례〉

- I. 序言
- II. 한정과 여유
 - 1. 선운사 기행
 - 2. 詩友들과의 交遊
- III. 궁핍한 시대의 노래
 - 1. 松阜齋에서의 苦吟
 - 2. 隱者의 꿈
- IV. 結語

I. 序言

權寧玉(1875~1950)의 자는 茂興이요, 호는 松阜이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에서 부 希曾과 모 黃州 邊氏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송고는 조선조 말과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수구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다. 勉菴 崔益鉉(1833~1906)을 만나기까지 유년 시절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趨庭과 인근 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학문의 기초를 닦았을 것으로 보인다. 송고가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은

* 이 논문은 2002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스승 면암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송고에게 있어서 면암과의 만남은 새로운 빛이며 또한 어둠이기도 했다. 면암은 일본 대마도에서 일본의 음식을 먹으며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보다 절명을 택한 인물이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면암의 절명은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며 생활의 지표이기도 했다. 그래서 송고는 스승 면암처럼 민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후학들의 교육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독과 비분을 詩心으로 꽃피우며 일생을 살았다.

송고의 유고집인 『松臯集』은 필사본으로 전해오고 있다. 天地·人 3권 3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출판을 위해 한 권으로 편집한 『松臯集』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2백여 편의 시와 「松臯齋記」 등의 산문과 면암 선생과 종친들에게 보낸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문학 작품도 완전하게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존하고 있는 『松臯集』과 그가 관여했던 詩社의 문집인 『三九會詩稿』 속에 있는 송고의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송고에 대한 자료조사나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三九會詩稿』에 시가 약간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송고의 문집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고, 번역도 되지 않은 상태라 송고의 작품 세계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송고의 작품이 완벽하게 수집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고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湖南學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 지방의 보수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소담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송고에 대한 연구는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송고는 일제 강점기에 학문을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일제의 탄

압을 피해 만주로 이주하지도 않았다. 소나무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민족과 비원을 함께 하며 살았다. 송고의 삶을 통해 보수 지식인들이 질곡의 시대에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응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21세기 한국의 지성인상을 정립하는 데 한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K C I

II. 한정과 여유

1. 선운사 기행

송고는 경술(1910)년에 선운사 기행을 나섰다. 선운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도솔산 북쪽 기슭에 있는 절로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이다. 송고의 거처인 성송면 학천 송고재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다. 그리 먼 곳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선운사는 고창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찰이고 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이다. 송고는 그 선운사 기행을 통해 3수의 시를 남겼다. 정확한 기행 일정은 알 수 없으나 계절은 봄으로 보인다.

나라는 망가지고 백성의 신세는 도탄에 빠져 있었어도 봄이 오면 들에는 꽃이 질펀하게 피고 가을이 밀려들면 산은 오색 단풍으로 곱게 단장했다. 그 아름다움은 예전보다 한결 더했다. 오히려 나라를 빼앗긴 산새들의 피멍이 이 강산을 더 붉게 물들인 것처럼 조국의 산하는 더 아름답기만 했다.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갔지만 계절이 일구어낸 산천의 경치는 어찌지 못했다. 아름다운 산하를 둘러 보는 것은 조국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이기도 했다.

一杖禪雲路에	한 줄기 선운사 길에
二三同志同이라	두세 동지와 함께 했네.
未了名區興하니	명산의 흥취가 다하지 않았는데
斜陽細雨中이라	석양에 가는 비가 오네.
	‘絶吟’ ¹⁾

고창의 명찰인 선운사를 구경하고 지은 ‘絶吟’이라는 시 중 첫 번째 시이다. 선운사에는 유명한 것이 많다. 수많은 문화재급 보물, 수려

1) 權寧玉, 『松臯集』, 五言絶句.

한 경치, 뒤편에 있는 동백숲, 깎아지른 듯한 절벽, 추사 김정희의 백파선사비문, 피안화 등으로 특히 유명하다. 선운사 경내에 들어서면 입구에서부터 아름다운 경관이 관람객의 눈길을 이끈다. 하늘을 가리고 있는 삼나무 숲, 여러 부도와 비석, 그리고 선운사 경내를 거쳐 진흥굴을 지나 도솔암까지 한 줄기 길이다. 참담암으로 들어가는 샛길이나 아산면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끼줄을 늘어놓은 것 같은 길이다. 그래서 한 줄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선운사 기행이 너무 단순화된 인상을 준다. 기행을 나선 동지들도 두세 명으로 단출하다.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어 누구누구와 함께 기행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다. 송고와 교유가 가장 많았던 인물들은 면암을 따랐던 同道之人과 茂長 鄉校의 儒林, 그리고 三九會의 詩友이다. 그러므로 이때 선운사 기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도 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고의 이번 기행은 빼앗긴 강산을 마음껏 구경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인 것 같다. 명산 기행을 다 마치지 않았고 시간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석양녘이라면 어찌면 선운사의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운사에는 서해안의 여러 섬들과 밀려드는 파도,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낙조대라는 유명한 전망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운사의 가장 빼어난 경관 중의 하나이다. 이 서해안의 노을은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경관이 아니다. 오직 해질 무렵에만 허용된 경관인 것이다. 그런데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가랑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많은 정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에 있어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비는 인간사에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풍요와 다산, 생명력을 상징한다. 특히 봄비는 부드러운 물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만물에 활력을 부여하며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원리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

는 기행을 방해하는 장애자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송고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기행의 부정적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조국은 망가지고 스승은 絶海孤島에서 絶命한 상황에 지식인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名山大刹을 기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어딘지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는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시에서의 봄비는 본래의 이미지와는 달리 고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봄비가 빗어낸 결과는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정경이면서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운사에서 받은 인상은 아름다움과 신비함 그 자체였다.

小菴山腰臍요 작은 암자는 산허리의 배꼽 같고
 怪石水中脣이라 괴이한 돌은 수중의 입술 같네.
 步步奇形地에 기이한 지형을 걷고 걸으며
 又聞好鳥春이라 또 아름다운 새의 봄 소리를 듣네.
 ‘絶吟’²⁾

‘絶吟’의 두 번째 시이다. 이 시도 물론 선운사를 기행하고 지은 것이다. 특히 이 시는 비유가 매우 특이하다. 작은 암자를 산허리의 배꼽에 비유하고, 계곡 밑바닥에 깔려 있는 돌들을 물 속의 입술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암자는 선운사의 도솔암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운사 도솔암은 산허리에 있어 이 시의 시상과 맞아떨어진다.

도솔암과 같은 작은 암자는 큰 사찰과는 달리 아담하면서도 정취가 있다. 큰 사찰에서 느끼는 소란스러움이 없다. 관람객을 압도하는 거부감은 더더욱 없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작으면서도 仙趣가 있어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은

2) 權寧玉, 위의 책, 같은 곳.

암자는 시인 목객의 고향이며 예술의 산실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말하는 암자에 대한 배꼽의 비유는 시인의 직관적 인상을 넘어 깊은 내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배꼽은 인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 모태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았던 생명의 관이며 그 흔적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배꼽은 생명의 근원이다. 때문에 힘과 창조 의 원천이기도 하다. 작은 암자가 예술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 연결되어 있다.

K C I

2. 詩友들과의 交遊

송고는 비교적 폭넓은 교유를 했다. 교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茂長 鄉校의 儒林, 勉菴 門下의 同志, 安東 權門, 三九會員 등 매우 다양한 인물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만남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만남을 통해서 인간사가 잉태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한다. 어떤 만남은 그저 평범한 관계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그것이 비록 우연이었다 하더라도 큰 사건을 수반하고 엄청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³⁾ 또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과 경험은 인간의 학문과 사상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송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忍齋 金坤과는 아주 특별한 교유를 하고 있다. 손자를 맡겨 교육을 부탁했고, 同道之人으로서 평생 교유를 유지했다.

談笑我如愚요	담소하는 나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知君特百夫라	그대는 여러 사내 중에 특별했음을 알겠네.
世同三國鬪요	세상은 삼국이 싸울 때와 같고
身似一帆孤라	몸은 한 돛대와 같이 외로워라.
長天橫北斗하고	먼 하늘에는 북두성이 비껴 있고
明月滿西湖라	밝은 달은 서쪽 호수에 가득하네.
客廉減主弊하니	객이 청렴해 주인의 괴로움을 줄이려고
不向青帘沽라	술집을 향해 술을 사게 하지 않네.
	‘與忍齋和吟’ ⁴⁾

송고가 忍齋와 화답해 읊은 시이다. 忍齋와 수창을 하거나 그를 전

3) 拙稿, 『學圃 梁彭孫의 義理精神과 文學世界』, 『古詩歌研究』 8輯, 2001, 7쪽 參照.

4) 權寧玉, 앞의 책, 五言律詩.

송하기 위해 지은 시가 8수이다.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다. 首聯에서 보면 忍齋를 學德이 높은 출중한 선비로 인정하고 있다. 송고가 직면한 시대는 亂世요, 거느린 가정은 표류하고 있는 외로운 배와 같았다. 그런데 忍齋를 만나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頸聯의 北斗星과 밝은 달은 忍齋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별과 달이 지나는 상징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북두성과 밝은 달이 지나는 상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존재가 가지는 유교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북두성은 忍齋의 道義心을 상징하고 밝은 달은 忍齋의 淸靜하고 隱逸한 군자의 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長天과 西湖는 북두성과 明月의 상징적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배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송고가 구체적 집단을 이루고 詩作 활동을 한 것은 三九會에 가입해서다. 삼구회는 靈光 유림인 六峯 李鍾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구성원은 5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이 가운데 50명은 영광 출신이며, 6명은 고창 남부 지역인 대산과 성송 출신이다. 그러므로 이 三九會는 영광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하고 고창의 일부 유림이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임의 명칭을 三九會로 한 것은 일년 중 三月과 九月에 모임을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물론 날짜로 보면 양의 기운이 왕성한 三月 三日과 九月 九일에 개최했을 것이다. 결성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三九會 詩集인 『三九會詩稿』가 발간된 것은 丁酉(1957)年 九月이다. 그러므로 송고 死後 7년만에 발간된 것이다. 서문은 陽泉 丁大秀가 쓰고, 跋文은 惺菴 李讚信이 썼다.

송고가 이 모임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모임에 영광 대마 출신인 忍齋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이 三九會의 己卯(1939)年 가을 모임이 鶴天 松臯齋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의 수가 몇 명인가는 알 수 없으나 이때의 작품에 박미산, 이농은 등

10명의 작품이 있는 것을 보면 10여 명 정도가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6명의 회원 중 겨우 1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면 이것은 그 동안 회원의 신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箕聖出吾東하니 기자 성인이 우리 동방에 나왔으니
 文風鄒魯同이라 문화와 풍물이 추나라 노나라와 한가지네.
 宜多天降瑞요 마땅히 하늘에서 내린 상서로움이 많고
 何乏歲成功가 어찌 해가 공을 이룬 것이 없겠는가.
 羣仙尋菊逕이요 여러 신선들이 국화의 길을 찾아오고
 孤鶴下松風이라 외로운 학은 소나무 바람에 내리네.
 此會雖爲美나 이 모임이 비록 아름다우나
 却憂鮮克終이라 문득 끝을 마친 이가 적을까 걱정스럽네.
 ‘己卯秋會’⁵⁾

송고가 己卯(1939)年 가을 모임 때 쓴 시이다. 首聯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유학자들의 보편적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箕子가 동방으로 와서 箕子朝鮮을 개국하였으며, 우리나라를 小中華로 보는 것이 그러하다. 문화적 수수 관계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우리 문화에 대한 반성과 새로움의 추구가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비판의 여지도 있다.

그리고 송고는 頸聯에서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예우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신선과 국화가 피어 있는 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화를 흔히 隱君子, 重陽花라고도 한다. 陶淵明이 ‘歸去來辭’를 짓고, 고향으로 돌아와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심고서, 남산을 바라보며 유유자적한 은둔 생활을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국화의 상징성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민속에서는 국

5) 權寧玉, 위의 책, 五言律詩.

화를 長壽와 변영의 仙藥, 다시 말하면 신비의 靈藥으로 보고 있다. 환갑이나 진갑에 국화를 헌화로 사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장수를 상징하는 국화에 다른 상징성이 보강되면 보다 강한 상징성을 지닌다. 바위 가의 국화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⁶⁾ 이 頸聯에서 신선이 국화와 결합하여 보다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頸聯에 등장하는 鶴은 松阜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손님들을 이미 신선으로 비유했으므로 鶴은 손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비유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鶴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송고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 바람에 내리는 외로운 학은 송고의 외모나 인격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松阜’라는 호와 ‘鶴天’이라는 지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鶴天은 지형이 鶴의 모습을 지녔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그리고 鶴天에는 두 그루의 아름답드리 소나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소나무 바람에 내리는 외로운 학은 바로 송고 자신을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궁핍한 시대의 노래

1. 松阜齋에서의 苦吟

송고는 여러 詩와 書簡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토로하고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송고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그의 字와 號라고 할 수 있다. 자와 호는 마을이나 주변의 산과 강, 또는 바위 등에서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좌표가 될 수 이상적인 말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송고의 경우도 마찬

6) 拙著,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研究』(월인, 2002), 184쪽 參照.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자인 ‘茂興’은 ‘茂長 고을을 흥기시킨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고장 문화를 흥기시키는 일로 그의 사명을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고가 살고 있는 星松面은 옛 茂長縣의 일부이고 이 고장의 유림들은 무장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호인 ‘松臯’은 소나무가 서 있는 언덕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마을의 정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松臯齋의 뜻은 편 언덕 松臯에는 수령이 오백 년이 넘은 아름답리 나무가 몇 그루 있다. 그중에 마을에서 당산나무로 숭배하고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하나는 할아버지 당산나무요, 또 하나는 할머니 당산나무이다. 할아버지 당산나무는 기상이 넘치고 준수하며, 허리가 굽은 듯한 할머니 당산나무는 분재형의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松臯는 바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을 지닌 할아버지 당산나무와 관련이 있다. 송고의 외모도 구척 장신의 기골이 넘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송고는 언제나 푸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떠받 들고 있는 듯한 이 소나무를 보면서 기상을 키웠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강점기하의 송고는 언제나 가난과 절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송고에게만 비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복을 입고 있는 아우는 궁벽한 마을에 었드려 있는데, 공과금의 징발과 사채의 독촉 두 가지가 적지 아니하여 날마다 맞이하고 때마다 보내어 마치 실 같은 남은 목숨이 개천에 굴러 죽는 분수를 달게 여기니 또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자면, 한갓 남의 뜻만 심란하게 할 따름입니다. …… 염치없음을 무릅쓰고 다시 생각한 바를 진술하여 우러러 높은 안목을 번거롭게 하니, 그대 뜻의 가부가 어디에 거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이르기를 짓 먹는 어린애가 울면서 밥을 구한다고 하는데, 나의 오늘날의 형편을 미리 말한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표시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7)

7) 服弟蟄伏窮巷 公徵私督 兩不少 日迎時送 如縷殘喘 分甘溝壑 亦命也 說之 徒亂人意耳 …… 冒沒廉訪 更煩所懷 仰瀆尊鑑 未知賢意之可否何居也 誰云乳下之孩兒啼而求飽者

송고가 辛未(1931)年 정월 초이렛날 復齋 李鍾澤에게 보낸 편지이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지난해의 아픔을 털고 희망 속에 새로운 계획도 세우기 마련이다. 그러나 송고는 정월초부터 知人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있다. 공과금과 빚 독촉은 연일 계속되는 일상사였다. 이것을 극복할 대책도 없고 힘도 없었다. 이미 나이는 들어 57세였다.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개천에 굴러 떨어져 죽는 자신의 처지를 달게 여기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난은 경제적 고통이 아니라 생활이었고 주위를 맴도는 그림자였다. 그나마 탈출구는 또 다른 빛을 얻어 기존의 빛을 갚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가난을 극복하는 대책이 아니라 가정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질곡이었다. 송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을 간청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구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송고의 생활은 궁핍했고 대책도 없었던 것이다. 송고의 주위를 맴도는 통한의 슬픔은 단지 이것만은 아니었다.

寂寞松窓下에	적막한 소나무 창 아래
岬然獨坐何오	높이 홀로 앉아 있으니 어이하리오.
空谷磴音絶이오	빈 골짜기에는 발자국 소리 그치고
風聲欺我何오	바람 소리가 나를 속이니 어이하리오.
不惜今宵盡이오	오늘 밤이 다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千愁萬念何오	일천 수심과 일만 생각을 어이하리오.
哀哉蟻蝨物이	슬프다 서캐와 이 같은 물건이
病且老之何오	병들고 늙은 것을 어이하리오.
殿屎未到符하고	신음하고 있는 중에 아직 병부만 오지 않았는데
費送光陰何오	세월을 허비해 보냈으니 어이하리오.

準備我今日事勢也 惠諒之示 切企切企耳. 權寧玉, 「與復齋李鍾澤書」, 앞의 책, 書.

雖云添一齒나	비록 한 살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咀嚼益難何오	씹어 먹기가 더욱 어려워니 어이하리오.
歲去憂難去요	해는 가지만 근심은 가기 어려운데
星星白髮何오	성성한 백발을 어이하리오.
春來喜不至요	봄은 왔어도 기쁨은 이르지 아니하고
觸目傷心何오	눈에 부딪치는 것마다 속을 상하게 하니 어이하리오.
老妻索命哭하니	늙은 아내는 살려 달라 곡을 하니
不忍聞之何오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을 어이하리오.
女孫呼父恨하니	손녀는 아버지를 부르며 한탄하니
一去覓之何오	한번 가매 찾은들 어이하리오.
用夷變夏世하니	오랑캐의 풍속으로 중국의 세상을 바꾸려 하니
教子義方何오	자식을 옳은 방향으로 가르치기를 어이하리오.
門前督債者를	문전의 빚을 독촉하는 자들을
無策答之何오	대책이 없으니 대답을 어이하리오.
十餘人口活을	십여 식구의 살길을
借款問誰何리오	빚을 내자니 누구에게 묻기를 어이하리오.
恩讐兩難事요	은혜와 원수 둘 섬기기가 어렵고
此生未報何오	이 세상에서 갚지 못하니 어이하리오.
明朝應有賢이나	내일 아침 응당 현인이 있을 것이나
無酒待之何오	술이 없으니 대접하기를 어이하리오.
思家無棹船이요	집안을 생각하며 노 없는 배요
泛泛中流何오	중류에 표류하고 있으니 어이하리오.
庭前梅含態하니	뜰 앞 매화나무가 자태를 머금고
爲報春信何오	봄소식을 알려주는데 어이하리오.
歲月忘之久하니	세월을 잊은 지 오래 되었으니
去不去將何오	간들 아니 간들 장차 어이하리오.
碌碌人間業이	능력 없는 사람의 일이
西疇耕作何오	서쪽 밭의 경작을 어이하리오.
蒼生魚肉慘이요	백성들은 짐승처럼 비참한데
濟世經綸何오	세상을 건질 경륜을 어이하리오.

黑漆虎狼輩가	검은 칠을 한 호랑이 같은 무리가
莫敢有誰何오	감히 어떻다고 말하는 이 없는 것을 어이하리오.
晚將橫鷺志나	늦게나마 치달리는 뜻을 가졌으나
家事付之何오	집안 일 맡기기를 어이하리오.
瞻彼西窟하니	저 피서굴을 바라보니
其於維持何오	그 유지를 어이하리오.
吾師遠大慮하니	우리 스승은 멀리 크게 생각하였으니
國讐報之何오	나라의 원수를 갚기를 어이하리오.
曲阜今生變하니	곡부도 이제 변이 생겼으니
至冤極痛何오	지극히 분하고 억울함을 어이하리오.
願聞泗上叟하니	듣기를 원하노니 사수가의 늙은이가
體節近如何오	안부가 요즘은 어떠한고.
吾聖君先祖니	우리 성인이 그대의 선조니
至靈慰所何오	지극한 분을 위안할 곳이 어디리오.
翻然天下事가	뒤집어진 천하의 일은
無復可爲何오	다시 할 수 없으니 어이하리오.
蠅蚋心內事를	꾸물거리는 마음속의 일을
一笑一盃何오	한번 웃고 한 잔 하니 어이하리오.
遠村鷄一唱하니	먼 곳의 닭이 한번 우니
送舊迎新何오	옛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을 어이하리오.

‘庚午除夕’⁸⁾

송고가 지인에게 구차한 도움을 청하기 전인 庚午(1930)年 除夕에 쓴 何字韻 三十句이다. 당시 송고의 처지와 심정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시이다. 당시 자신이 처한 형편과 소회를 일일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 정보적 기능이 매우 강한 시이기도 하다. 집안이 가난하게 되고 뜻을 잃게 되니 자연 찾아오는 지인들의 발걸음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소나무 창 아래 홀로 앉아 있는 것이다.

8) 權寧玉, 앞의 책, 古詩.

그러나 아직 儒者로서의 자세는 잃지 않고 있다. 높이 앉아 있는 모습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선달 그믐인지라 만감이 교차할 것인데 주위 환경이 어렵다 보니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직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에 병마뿐이었다. 그러므로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단지 저승에서 使者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아내는 병들어 呻吟하며 살려달라 울부짖고 손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며 한탄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찾는 손녀의 울부짖음은 곧 송고의 아들 五聖(1899~1930)의 죽음을 암시한다. 송고의 장자 오성의 字는 復卿이며 호는 鶴天이다. 마을 이름으로 호를 삼은 것이다. 외모는 부친을 닮아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한 얼굴에 기상이 뛰어났었다. 인품은 호쾌하고 주위 사람들과 매우 친화적이었다. 그런데 32세의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운명한 것이다. 송고는 장자의 죽음으로 가문의 위기를 맞게 되고, 자신의 학문을 계승할 제자를 잃게 되었다. 집안을 이끌 아들이 없으니 집안은 노 없는 배와 같이 종류에 표류하고, 가산이 기울어 찾아오는 현인이 있다 할지라도 대접할 술이 없었다.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아픔이 물질적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시대나 은혜와 원수 둘을 같이 섬기기는 어려운 법이다. 더구나 검은 칠을 한 호랑이 같은 무리(黑漆虎狼輩)와 하늘을 함께 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당시 세상 풍속은 진나라 정치보다 가혹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었다. 또한 백성들은 짐승 처럼 비참한데 세상을 건질 경륜이 없었다. 스승 면암은 대마도에서 絶命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고 제자들에게 앞일을 부탁했다. 하지만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저 해는 가지만 근심은 가기 어려운데 성성한 백발을 더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세월은 가 어둠이 거치고 먼 곳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이것은 송고가 절망에만 자신을 내던진 것은 아님을 말한다. ‘庚午除夕’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실낱같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닭은 태양의 새로서 어둠과 밝음을 境界하는 새벽의 존재이다. 그래서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알린다. 닭의 외침은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한다. 송고는 장자가 죽은 후 어린 손자 後松 公을 통해서 아직 가문에 희망이 있음을 느낀 것이다. 後松 公은 송고의 孫子로 이름은 赫仁이며, 그때 나이 10세였다. 송고의 벗인 忍齋 金坤의 제자이기도 하다. 송고가 가장 신뢰하는 학자에게 자신의 가문을 이룰 손자를 맡긴 것이다. 그 손자가 호를 ‘後松’이라고 한 것은 松阜의 뒤를 잇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평소 조부의 기대가 무엇이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이는 대목이다.

2. 隱者의 꿈

송고는 평소 스승 면암을 신앙처럼 우러르며 살았다. 그러므로 송고의 삶을 보면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송고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고, 그가 함께 한 시대와 그가 속한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 어찌면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스승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기도 했다. 더구나 천지가 한꺼번에 엉뚱이 되어버린 상황에 누군가는 어둠을 밝힐 촛불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能令淑季免寥寥하니 숙계로 하여금 적막함을 면하게 하니
不信試看來去潮하라 믿지 못하겠거든 오고가는 조수를 보라.
採薇須隱首陽岵요 고사리를 뜯으며 모름지기 수양산 봉우리에 숨고

仗義當思善竹橋라	정의로써 일을 행하며 마땅히 선죽교를 생각했네.
交結英雄長策振이요	영웅들과 사귀어 긴 지팡이를 떨치고
掃清塵穢宿憂消라	티끌과 먼지를 씻어 깨끗이 하고 묵은 근심을 없앴네.
嗟我同遊二三子아	아 우리 함께 노는 그대들이여
傾肝吐膽意挑挑라	간을 기울고 쓸개를 토해내어 뜻을 돈고 돈우세.

‘丁未春偶吟’⁹⁾

송고가 丁未(1907)年 봄 그의 나이 23세에 읊은 시이다. 송고는 頤聯에서 백이숙제와 포은의 고사를 들어 자신의 節義를 표현하고 있다. 백이숙제는 굶주림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은 賢人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존재며, 포은은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 앞에서도 節義를 지킨 만고충신으로 추앙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인 것이다. 그리고 頸聯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무너져 가는 조국을 붙들기 위해 일어난 의병들을 말한다. 송고는 이들과의 결의를 통해 스승의 유지를 받들고자 한 것이다. 尾聯에서 송고는 동지들에게 자신의 결의를 보이고 의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음해에 쓴 ‘戊申上元偶吟’에서는 원수와 하늘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을 내 이미 맹세했다¹⁰⁾고 자신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집안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아내는 죽음 앞에 허덕이며 울부짖고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다. 미래의 희망인 손자는 겨우 열 살이었으니 집안일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송고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독립운동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조부로서 어린 손자를 지키고 교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처해 있었다. 송고는 이 문제로 만년

9) 權寧玉, 앞의 책, 七言律詩.

10) 將無淨地君安適가 共鬻天我已盟이라. 權寧玉, ‘戊申上元偶吟’, 앞의 책, 七言律詩 參照.

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야 했다.

鳥止誰家屋고 새는 누구 집 지붕에 머무는고
 鴈來故國聲이라 기러기가 고국에 돌아오는 소리가 나네.
 晩生仙李世하여 늦게 조선 왕조의 세상에 태어나니
 義重泰山輕이라 의는 중하고 태산은 가볍네.
 ‘奉和萬齋族弟瓊章’¹¹⁾

族弟 萬齋의 시에 화답한 시이다. 만재의 이름은 載春이며 영남 사람이다. 그와 왕래한 서신이 십여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다.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끔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종중사였다. 이것은 당시 유림 관심사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어찌면 조국을 잃어버린 유림의 입장에서 보면 가문의 문제는 마지막 남은 자신들의 존립의 근거였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조상의 사당, 선산, 位畵 등이 유림의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양인의 교유도 종중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의가 쌓였다.

‘奉和萬齋族弟瓊章’에 등장하는 기러기는 가을에 남하하였다가 봄에 돌아가는 겨울새로 먼 곳에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기러기를 信鳥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만재의 방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만재는 단순히 종중사만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는 않다. 轉句와 結句에 이어지는 ‘늦게 조선 왕조의 세상에 태어나니, 義는 중하고 태산은 가볍다.’는 것은 시대적 의무감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仙李’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에 대한 美稱이다. 나라를 망친 왕조와 임금에 대해서도 변치 않는 애정과 무거운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고는 공과금과 빚으로 인한 궁핍과 스승의 유지를 받들지 못한

11) 權寧玉, 앞의 책, 五言絶句.

자괴감 속에서도 머지않아 오게 될 새로운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松臯齋에 서당을 열어 인근의 자제와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다.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새로운 교본도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신식 학교와 같은 제도는 아니었다. 교본에 數式과 새로운 문명 용어를 도입한 것을 보면 전통 서당과 신식 학교의 중간 형태를 취했던 것 같다. 손자의 교육은 자신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지만 친구인 忍齋에게 많이 맡겼다. 손자의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趨庭의 방법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통적 방법인 易子教之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송고에게 있어서의 교육은 儒者로서의 도리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스승의 유지를 받들려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洞關鶴天傳世基요	마을을 학천에 열어 대대로의 터전을 전해왔는데
松盤臯疊一般奇라	솔은 서리고 언덕은 칩칩한 것이 한가지로 기이하네.
道士羽衣翻學日이요	도사의 날개옷이 펴터이는 날
高人石枕夢爛時라	은자의 돌베개에 꿈이 무르녹으리.
風清虛檻琴乎韻이요	바람 시원한 빈 난간에 거문고는 소리를 내고
雲出荒園嘯也詩라	구름이 황량한 동산에서 나오니 휘파람 불며 시를 짓네.
自遊自樂雖居此나	스스로 노닐고 스스로 즐기면서 비록 여기에 거처하나
這箇寬心莫我知라	이 편한 마음 나를 아는 이가 없네.

‘吟松臯’¹²⁾

송고의 조상 準이 鶴天에 터전을 닦은 것은 壬辰倭亂 때부터였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보면 약 400년이며, 인물로 보면 13대이다. 한 집터에서 약 400년에 걸쳐 13대가 살아온 것이다. 首聯에서 말하는 솔이 서려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할머니 당산나무를 말한다. 그곳에는 盤松 외에도 느티나무 등 몇 그루의 우람한 나무들이

12) 權寧玉, 앞의 책, 七言律詩.

있어 수려한 풍광을 이루고 있다.

송고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오게 될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바로 道士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도사가 이르면 隱者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람 시원한 빈 난간에 앉아 거문고를 연주하고 휘파람을 불며 시도 지을 것이다.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노닐고 즐기는 생활을 송고는 꿈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IV. 結語

松臯 權寧玉은 조선조 말과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수구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다. 송고는 스승 勉菴 崔益鉉을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며 살았다. 송고에게 있어서 면암과의 만남은 새로운 빛이며 또한 어둠이기도 했다. 송고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청년 시절에는 志士로 나섰다. 그러나 長子가 죽자 면암처럼 민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후학들의 교육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독과 비분을 詩心으로 꽃피우며 일생을 살았다.

송고의 유고집인 『松臯集』은 필사본으로 전해오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백여 편의 시와 「松臯齋記」 등의 산문과 면암 선생과 종친들에게 보낸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문학 작품도 완전하게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존하고 있는 『松臯集』과 그가 관여했던 『三九會詩稿』 속에 있는 송고의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송고는 경술년 선운사 기행을 나섰다. 선운사 기행을 통해 송고는

3수의 시를 남겼다.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갔지만 계절이 일구어낸 산천의 경치는 어찌지 못했다. 아름다운 산하와 名山大刹에 대한 기행은 송고의 조국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다.

송고는 비교적 폭넓은 교유를 했다. 특히 忍齋 金坤과는 아주 특별한 교유를 하고 있다. 송고가 忍齋를 北斗星에 비유해 표현할 정도로 그는 학문과 덕망을 지닌 선비였다. 그래서 송고는 손자를 맡겨 교육을 부탁했고, 同道之人으로서 평생 교유를 유지했다. 그리고 송고는 三九會에 가입하여 詩作 활동을 했다. 삼구회는 영광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하고 고창의 일부 유림이 가입한 모임이다. 이 三九會의 己卯(1939)年 가을 모임이 鶴天 松臯齋에서 개최되었는데, 송고는 이날 모임에서 손님을 신선에 비유하고 자신은 학에 비유하는 ‘己卯秋會’라는 시를 썼다.

조국을 잃은 송고는 언제나 가난과 절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개천에 굴러 떨어져 죽는 자신의 처지를 달게 여기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난은 경제적 고통이 아니라 생활이었고 주위를 맴도는 그림자였다. 그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그려낸 시가 ‘庚午除夕’이다.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아픔이 물질적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시대나 은혜와 원수 둘을 같이 섬기기는 어려운 법이다. 더구나 검은 칠을 한 호랑이 같은 무리(黑漆虎狼輩)와 하늘을 함께 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송고는 그가 함께 한 시대와 그가 속한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도리를 다하려는 뜻을 가졌다.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스승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한 의지를 드러낸 시가 ‘丁未春偶吟’이다. 이 시에서 송고는 백이숙제와 포은을 통해 자신의 결의를 밝혔다. 그리고 다음해에 쓴 ‘戊申上元偶吟’에서는 원수와 하늘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송고는 공과금과 빚으로 인한 궁핍과 스승의 유지를 받들지 못한

자괴감 속에서도 머지않아 오게 될 새로운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松臯齋에 서당을 열어 인근의 자제와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다.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새로운 교본도 만들었다. 송고에게 있어서의 교육은 儒者로서의 도리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다시 말하면 송고는 교육을 통해 머지않아 오게 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K C I

참고 문헌

1. 자료

權寧玉, 『松阜集』
金麟厚, 『河西集』
『三九會詩稿』
『安東權氏大同譜』
崔益鉉, 『勉菴集』

2. 著書

權純烈,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연구』, 월인, 2002.
金禹昌, 『궁핍한 시대의 詩人』, 민음社, 1977.
C. 브루크스, 李永傑 譯, 『숨은 神』, 三中堂, 1977.
M. 하이데거, 蘇光熙 譯, 『詩와 哲學』, 博英社, 1974.
_____, 吳炳南·閔炯源 公역, 『藝術作品的 根源』, 經文社, 1982.

3. 論文

權純烈, 「學圃 梁彭孫의 義理精神과 文學世界」, 『古詩歌研究』 第8輯, 韓國古詩
歌文學會, 2001.

<투고일 : 2004.12.29. 심사일 : 2005.1.20. 심사완료일 : 2005.2.2>

Abstract

A Study on Songgo Kwon Yong-Ok

Kwon, Soon-yeol

Songgo Kwon Yong-Ok soothed his anger through poems under the rule of Japanese Empire and devoted his life educating his pupils to prepare for a new age. Also He didn't think about studying in Japan even though it would lead to successful life. He also refused to move to Manchuria to escape from the oppression of the Japanese Empire. He settled down in this area and lived with the nation like pine trees. Songgo's life shows well how conservative intellectuals prepared for and responded to the future of the nation in the age of the fetters.

Songgo's life made a difference of the history of Korean spiritual civilization under the rule of Japanese Empire. Therefore, studying about him will be able to provide aid in the study of confucian life under Japanese rule and how to pursue it into the new century.

**Key words : Songgo, the rule of Japanese Empire, the future of the nation
educating his pupils, pine trees**